

광주 음식·주점 취업자 5만명대로 ‘뚝’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수 7000여명 줄어 5만 9000명대로
지역 취업 비중 ‘교육서비스업’에 밀려 2위로 내려 앉아

매년 광주지역 산업 중 취업자 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 수가 7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경기침체로 지역민의 소비가 줄어들고,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접거나, 고용을 줄이는 등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광주시 취업자 수는 76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2000명(1.6%) 감소했다.

산업중분류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6만 1000명(8.0%)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음식점 및 주점업(5만 9000

명·7.7%), 사회복지 서비스업(5만 9000명·7.7%)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지역 특성상 음식점 등 자영업 비중이 높아 매년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교육·서비스업에 밀려 2위로 내려 앉았다.

광주지역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 19 여파로 점차 줄더니, 2022년 하반기에는 6만 5000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2023년 하반기에는 1년 전보다 1000명 증가한 6만 6000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4년 하반기에 다시 5만 9000명대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광주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하반기 기준 2022년 5만 8000명, 2023년 5만

9000명, 2024년 6만 1000명 등으로 상승해 지난해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직업별 분류에서도 광주시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000명 줄어든 5만 2000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역 주요 산업인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것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역시 지역 주요 산업인 ‘농업’이 주춤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남지역 취업자 수는 101만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감소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 취업자 수는 19만 4000명으로 전년에 견줘 4000명(0.3%) 감소했다. 전남 농업 취업자는 하반기 기준 2022년 21만 4000명, 2023년 19만 8000명, 2024년 19만 4000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봄 향기 물씬 향수 만나보세요”

매장별 다양한 증정 프로모션

광주신세계는 “봄을 맞아 향수 제품들을 선보이고, 매장별로 다양한 증정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본관 2층에 마련한 ‘불가리 퍼퐁’ 매장에서는 ‘알레그라 피오리 다모레 오드퍼퐁’을 만나볼 수 있다. 해당 향수는 라즈베리와 로즈향이 더해진 화려한 플로럴 향을 지녔다는 특징이 있다. 불가리 퍼퐁은 알레그라 컬렉션을 20만원 이상 구매 시 10ml 향수와 매그니파잉 키트를 증정하는 신규 프로모션도 펼친다.

‘크리드’는 장미 3종의 향이 특징인 ‘엘라다리

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디스커버리 키트와 오토마이저를 증정한다.

‘딤디크’ 매장에서는 장미꽃 향의 향수와 헤어 미스트, 핸드크림으로 구성된 ‘오로즈 라인’ 수유가 많다. 30만원에게는 디럭스 퍼퐁 5ml, 바디케어 20ml 2종을 증정한다. ‘산타마리아 노벨라’와 ‘아쿠아 디 파르마’ 등 다양한 향수 브랜드에서도 신상품을 출시해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심한성 광주신세계 잡화팀장은 “봄을 맞아 꽃·과일 등 산뜻함을 가진 향수를 선보인다”며 “광주신세계에서 신제품 시향을 통해 나에게 어울리는 향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美 관세 대응 방안 찾자”…광주·전남 중소기업지원협의회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내

애로신고센터 구축 등 지원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나라키움광주통합청사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30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참여 기관의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기관별 주요 지원 계획과 지원 기관 간 협업·홍보 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상호 관세 조치에 따른 대응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내 애로 신고 센터를 구축해 미국 관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인구 감소 지역의 연구 전담 인력 기준 완화, 외국인 유학생 일반 고용 허가제 비자 전환 허용 등이 건의됐다.

2025년도 제4회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
일시 : 2025.04.24.(목) 14:00
장소 : 나라키움광주통합청사 1층 다목적실
주관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4일 나라키움광주통합청사 1층 다목적실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 협의회를 열고 참여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광주시에서는 ‘(Pre) 명품강소기업 육성 및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 사업’을 설명하고 참석 기관의 홍보 협조를 부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관 간 소통·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JB금융지주·광주은행 1분기 영업이익 감소

광주은행 868억원에 그쳐

JB금융지주와 자회사 광주은행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모두 1년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JB금융지주가 24일 공시한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에 따르면 JB금융지주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2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매출액은 1조 122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5.2%

감소한 166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1분기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86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9%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은행의 1분기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7% 줄어든 4350억원, 당기순이익은 8.7% 감소한 670억원을 기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금리 혜택 ‘KJB주거래우대예금’ 출시

광주은행은 “지난 22일 거래 실적 및 주거래 고객 여부 등에 따라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KJB주거래우대예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KJB주거래우대예금은 시장금리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예금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2.17%, 조건을 충족시키면 최고 연 0.50%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2.67% 금리를 제공한다.

KJB주거래우대예금은 광주은행 입출금계좌 평균 잔액 100만원 이상, 광주은행 정액정입식 적금 계좌 보유, 급여·연금·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중 월 1건 이상 입금실적 보유, 광주은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300만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축하 등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0.10%p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장윤영 기자 zzang@

“국가균형발전 핵심 달빛철도…더 미뤄선 안 돼”

광주·대구상의 예타 면제 촉구

광주·대구지역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대구상의는 24일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과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고 지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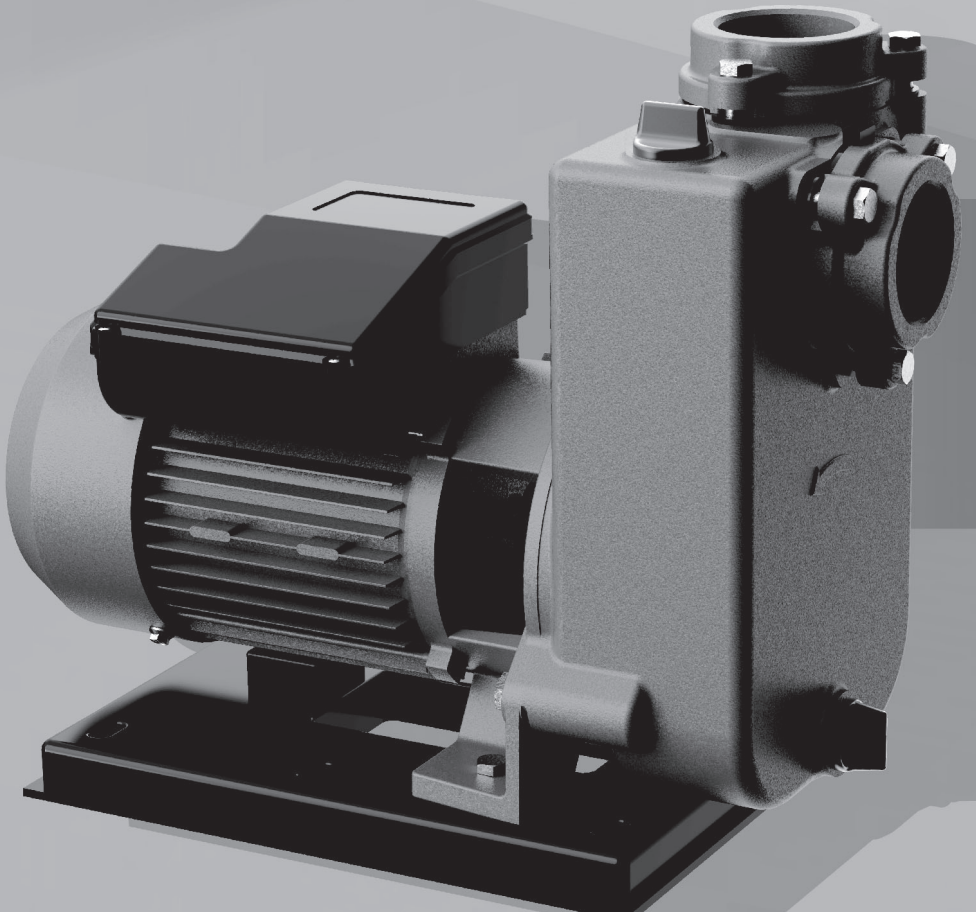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두 지역 상의는 “달빛철도는 단순한 교통망을 넘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의 핵심 인프라”라면서 “동서 간 상생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시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 규모의 단선 전철로 남부권 6개 시·

도, 10개 시·군·구를 잇는 핵심 교통망이다. 광주·대구시는 시속 200~250km/h의 속도로 광주송정과 서대구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해당 노선을 통해 물류비 절감, 지역 간 교류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2.33 (-3.23)
코스닥	726.08 (0.00)
↑ 금리 (국고채 39년)	2.341 (+0.004)
↑ 환율 (USD) <오후 5시 10분 기준>	1438.55 (+17.95)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